

잇단 개발 호재...광주 노후 주거지 '들썩'

법무부, 옛광주교도소 부지 문화시설 지정 요청

송정역 부근 금호타이어 이전 계획...군공항 이전 주목

임동 일신·전남방직 활용방안 현실화 여부 관심

광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역 노후 주거지 시장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지역들인데다, 개발호재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조성 착착=6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옛 광주교도소 내 건립할 솔로몬로파크(대지 1만8946㎡)와 관련,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해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미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9만8680㎡) 부지 중 솔로몬로파크 건립에 필요한 예산 191억원 중 올해 설계비와 착공비 명목으로 2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솔로몬로파크는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7492㎡) 규모로 건립되며 법제협 및 전시관, 연수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솔로몬로파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한편, 나머지 부지(7만9734㎡)도 민주·인권기념파크나 최근 발표한 첨단물류 및 e커머스 창업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 확정되면 일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광주교도소 일대 부지는 오랫동안 개발이 소외됐던 곳이지만 최근 인접한 장례식장 부지(2만4351㎡)에 1073세대(7개동 39층) 규모의 공동주택·업무시설을 짓는 계획이 광주시 심의를 받는 등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송정역 인근...비행제한구역 해제 가 관건=금호타이어가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면서 39만㎡가 넘는 송정역 인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부동산 가격도 급등한 상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송정역 일대는 지난해보다 평균 22%가 상승, 광산구 평균(10.3% 인상)을 훨씬 웃돌았다. 송정역 바로 앞 상업지역 땅값은 3.3㎡당 1500만원이던 호가가 3000만원으로 뛰었고 단독주택이 들어선 송정역 인근 도로변 땅값도 3.3㎡당 1500만~2000만원에 이르는 게 지역부동산업계 전언이다.

다만, 해당 부지 일대가 군 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 6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건축물 건립 시 고도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 일대는 공동주택 높이 23층~29층을 계획할 경우 공군 1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송정역 인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려면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동 주택가도 들썩...일신·전남방직, 활용방안 현실화 관심=광주시가 '광주친 일신재 조사용역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임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광주시의 용역보고서는 일신·전남방직 부지를 근대산업박물관이나 한국 면직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일신방직 쪽 폐공장을 개조해 목화·잠업부터 근대 면직산업, 면직업 이외 근대 산업시설 설명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고 전남방직 쪽 폐공장에 콘텐츠 창작시

설, 광주전과 발산을 조망하는 뉴트로 플레이스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용역 보고서 내용이다.

또 양동 발산 문화창조마을과 임동 간 뽕뽕다리를 재건하면 낙후지역인 임동 뿐 아니라 양동 발산마을까지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후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매입한 뒤 상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임동 일대에 기존 공영 주차장 부지로 묶어뒀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용역에 들어간데다, 전남방직 건너편 임동 94·8번지 일대 3만6458㎡에 임동 2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식기)는 6일 KTX 광주송정역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설 귀객들을 대상으로 전남 10대 브랜드쌀을 나눠주며 광주·전남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광주·전남 대표브랜드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농협은 지난 2003년부터 17년째 귀객들을 대상으로 브랜드쌀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속 실적을 상정하는 방식이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실적을 매기는 방식이다.

1~2차 시범사업에는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km, 온실가스 404t, 미세먼지 112kg을 감축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거쳐 올해 운영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친환경 운전하면 10만원 혜택 드려요”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6500명 선착순 모집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과속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

품권, 탄소개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진단장치(OBD) 방식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650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추진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참여자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중이며 올해 시범사업은 선착순으로 6500명을



목포 신중양시장 피해 복구 성금 기탁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오른쪽)가 지난 31일 목포시청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신중양시장 인근 먹거리 골목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대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사재를 출연해 성금을 기탁했다. (보해양조 제공)

부정적 수출 통계에...광주 '암울'

지난해 광주수출 1.9% 감소 자동차 등 주력산업 하락 전망

광주지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올해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한국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2개월 연속 뒷걸음치는 등 2년여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흐름이 바뀔 지도 주목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5.8% 줄어든 46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두 달 연속 감소는 지난 2016년(9~10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국내 수출뿐 아니라 지역 수출도 비슷하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집계한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은 146억 65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도(149억 5100만달러)에 견줘 1.9% 감소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지난 2016년 4.0% 감소했다가 2017년 1.7%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 전자 및 축전지 등의 수출 증가에도 자동차, 냉장고, 타이어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

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게 무역협회측 설명이다.

지역 경제계의 관심은 이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지 여부로, 낙관할 수준은 못 된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된다는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보다는 경기 순환적 요인이 작용한 점, 수출 단가가 하락한 반면, 수출물량은 견조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가격·유가 회복이 예상되면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수출액이 작년보다 1.4% 감소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무역협회도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과 관련, 자동차는 소폭 하락, 냉장고, 타이어 등은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 북미 신중설에 의한 공급 증가(석유화학) 및 중국 등 정제설비 확충(석유제품)으로 수출 경쟁이 심화되어 주력 품목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전 분야를 포함할 경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46억 9400만달러,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375억1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면욕 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 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